

▶ 불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 '불교와 사회 포럼'(공동대표 이명래·김광삼·김규철·김용표·성대용) 창립 세미나가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성료됐다. 한영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조성택 고려대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교수, 노부호 서강대 교수가 차례로 사회현인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불교와 사회 포럼의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다음은 각 주제별 발표와 논평·토론 요약.

● **조성택 교수 '불교와 현대사회'**

오늘날 불자들이 느끼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불교가 현대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다.

현대사회의 분절화·전문화 경향 속에서 종교의 역할은 축소되고, 신생활운동은 삶의 전제가 아닌 일부본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또 타 종교와 공존을 요구받고 있어서 불교는 더 이상 보편적 원리가 아닌 하나의 특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서구 불교는 이 같은 현대사회의 환경변화에 불교가 적응해 탄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교사관 분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다양한 전통의 불교들이 새로 생겨나고 공존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서구 불교도 그 가운데 있는 셈이다.

기독교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에서 불교는 ▲지식인과 예술인 등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엘리트불교 성격 ▲사회운동 차원의 실천불교적 성격 ▲개인주의적 성격 ▲자기 중심적 성격을 띠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구 불교는 기존불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불교라 말할 수 있다. 서구 불교에서 우리는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적인 불교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불교적 삶에 대한 시론적인 답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불교적 특징을 유지하는 한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즉 최소한의 공동가치인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경제권, 균등한 교육의 기회 등이 전제된 가운데, 보다 근본적으로 불교는 인류의 공동선을 넘어 개인적인 행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불교적 삶의 원칙으로는 ▲수행의 일상화 ▲무아와 연기법에 의한 세계 이해 ▲적은 것이 더 많다 ▲최소주의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논평-김종욱 동국대 교수
불교사를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로 이해하는 데 동의한다. 현대 불교를 적극적으로 패러다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대내적으로 국가에 대한 합리적 비판적 역량이 되고 동시에 사회적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지식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포럼을 지향해야 한다.

● **박세일 교수 '불교와 정치'**

오늘날 한국 정치에는 두 가지 병이 있다. 하나는 정치가 '국민 분열과 갈등'에만 치중하지 '국민통합과 화합'의 노력을

'불교와 사회 포럼' 창립 세미나 성료-주제 발표·논평·토론 요약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가 과거와의 전쟁에 매몰된 채 미래의 건설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통합보다 대립과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민분열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화합과 통합을 중시하는 부처님이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도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너무 절대화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이다. 포퓰리즘은 무명의 정치, 탐진치의 정치, 즉 어둠과 미움, 시기의 정치 이므로 빨리 버리라고 할 것이다.

'과거와의 전쟁'은 우리 정치가 직면한 또 하나의 병이다. 여기에는 역사를 흑과 백으로 나누려는 이분법적 사고가 담겨 있다. 역사의 정리는 역사학자의 과제다. 정치적 목적이 개재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정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모습을 부처님이 본다면 "중생들이, 너희들 중 아무도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 모두가 역사의 업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불자는 마음을 개조하면서 그 원력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세계를 개조하면서 마음을 개조해야 한다. 원리적으로 불교와 정치는 구별할 수 없다. 세법(世法)과 불법은 둘이 아니다.

불교를 내세워 정치를 멀리하거나 정치를 내세워 불교를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논평-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정치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정치는 미래지향성을 상실해 나가기 시작하고 전락한 뼈저린 경험이 있다. 과거정치의 내용은 우리 민족이 미래를 향해 웅비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그 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노부호 교수 '불교와 경영'**

불교사상은 기업경영에 적용돼야 한다. 기업은 불교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실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을 경영학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모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불교적 경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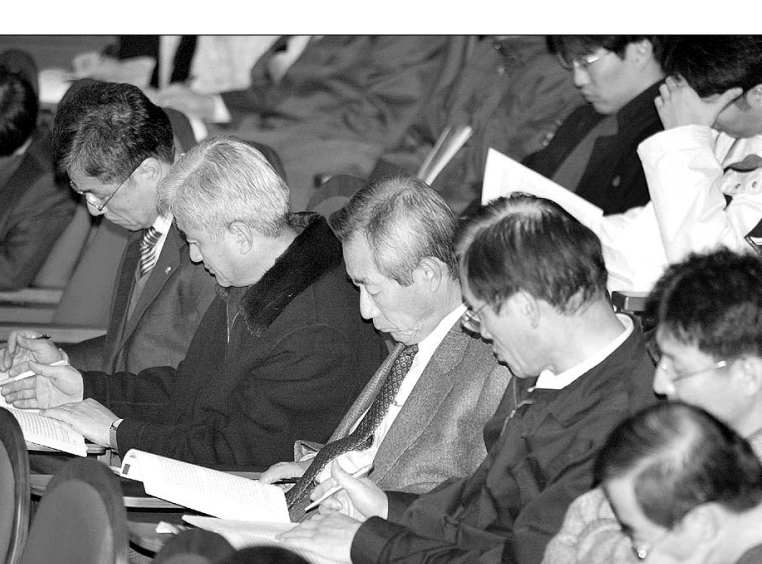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목적은 종업원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았다. 앞으로 기업경영은 종업원의 잠재력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불교적 깨달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개발함으로써 자기를 찾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기존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를 찾아가는 의미로 볼 수 있

● **조성택 교수** 인류 공동선 넘어 근원적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 **박세일 교수** 국민분열·과거와의 전쟁, '마음·세상 개조'로 극복을

● **노부호 교수** 불교적 경영은 종업원 잠재력·가치관 개발이 핵심



'불교를 세상을 말하고 세상으로 불교를 말한다'는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불교와 사회 포럼'의 창립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려 불자들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성택 교수** 인류 공동선 넘어 근원적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 **박세일 교수** 국민분열·과거와의 전쟁, '마음·세상 개조'로 극복을

● **노부호 교수** 불교적 경영은 종업원 잠재력·가치관 개발이 핵심

● **손기원 소장** 지혜경영연구소장

오늘날 분식회계·노사불화·기업수명단축 등 경영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이 적극 모색돼야 하는 시점이다. 불교경영은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안적 경영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 **지식인 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은?**

발표 및 논평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오늘날 불교가 처해있는 사회적

위상의 원인과 과거사상인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됐다.

"불교가 지식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조성택 교수는 "조선시대 500년간 불교가 단절돼 불교의 역사가 일천한 데다 독립운동, 민주화,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계 역할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하며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불교계가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욱 교수는 조선불교사를 단절로 보는 데 반대하며 "불교가 탄압을 이겨내는데 엄청난 공력을 들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불교와 사회 포럼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먼저 짚어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여 호응을 받기도 했다.

'박 교수의 발표 또한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세일 교수는 "내 주장은 국민감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학자로서 공부해온 바에 토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공업(工業)만 강조하는 것은 을사조약 등 친일파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을사조약을 문제삼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공업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부호 교수의 주장은 경영이란 가운데 좋은 것을 불교에 갖다 붙인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력 개발이라는 점에서 깨달음과의 연결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포럼 발전 방향' 다양한 의견 내내**

종합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은 저마다 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 주인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론의 주제와 관련해 ▲주제선정위원회 구성에서 주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논의가 돼야 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논쟁보다는 불교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포럼의 방향에 대해서 "기독교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미래학적 관점에서 포럼을 이끌어 진정한 대안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견해를 불교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선 안 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글=박익순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 기사남겨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짜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 있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보다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경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짜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심마니 토종 오가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 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02)447-9114
HYUN PUNG F&B CO.LTD

심봤다! 제2의 산삼